

『여원』에 나타난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 연구

이상화*

차례

1. 머리말
2. 직업여성의 형성과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의 젠더화 과정
3. 『여원』에 나타난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화 양상
4. 맺음말 - 문화교양계층의 아비투스 형성

국문초록

『여원』은 1955년 10월 이후 1970년 4월까지 발간된 여성교양잡지로 지식 여성들의 지원 아래 여성의 문화교양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의 번영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담론을 제공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문화교양계층 가운데 직업여성의 문화교양계층의 대표적인 직업여성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직업여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6·25 동안 후 가장의 부재라는 사회적 현실과 해방 후 시작된 미국의 경제원조가 한국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주면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에는 비록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가 주도의 대외 지향적 수출지향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여성 직업군이 형성되었다. 특히 ‘제3세계 근대화론’을 근간으로 한 중간계급 중심의 근대화정책은 지식 여성의 직장진출을 확산시켰으며 이는 신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원』은 이러한 직업여성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던 신흥 중간계급 즉 신중산층을 초점화하여 담론화하고 있다. 즉, 예비 직

* 상명대 국어교육과 강사

업 여성과 신입사원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인의 소양과 의식함양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교육적 차원의 담론과 미혼 직업여성의 연애와 결혼의 문제, 기혼 직업 여성의 가정과 육아문제, 직업여성의 사회복지 문제 등 사회현상과 제도적 차원의 담론 등 학교의 장(場)과는 다른 문화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여원』에서는 하층 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여성의 담론을 다룰 때는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상층 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여성들의 담론을 다룰 때는 직업여성 자신들의 수기와 실제적인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근대화정책의 주체 세력인 신중산층 즉, 문화교양계층의 교육정도, 취향, 매너 등의 문화자본에 초점을 두고 아비투스¹⁾를 형성시키고자 한 기획의도와도 상응하는 것이다.

핵심어 : 직업여성, 신중산층, 근대화 정책, 미디어담론, 아비투스

1. 머리말

해방 후 남한의 과제는 식민지적 경제구조와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이었다. 1950년 6·25 동란 이후 한미 동맹이 성립되고 농지개혁과 함께 한국 사회구조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경제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형성된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우선정책을 통해 ‘경제개발’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모든 정치사회적 가치를 복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을 극대화하는 시기였다.¹⁾ 이러한 근대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교양계급으로 인식되는 중상류계급 이상의 지식층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1) 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상의』, 생각의 나무, 2004, 163쪽;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상의 : 1945~1990』, 돌베개, 1998, 284쪽.

『여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던 『학원』의 인기에 힘입어 학원사에서 1955년 10월 발간한 여성들을 위한 교양잡지로 1970년 4월까지 발간되었다. 『여원』은 당시 한국의 여건상 지식층에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출판이 가능한가”하는 의구심 속에 시작되었으나²⁾ 지식여성들의 지원 아래 여성의 문화교양³⁾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의 번영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발간되었다. 이는 창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방 10年 -.

여성해방의 구호는 이어져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여성동등권은 어느 정도 획득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여성으로서 이바지함은 얼마나 컸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공허함을 느낀다.

…중략…여성의 문화의식이 높지 못하다는 결론에 용이히 도달할 수 있다.

여성의 문화의식이 낮고서 그 국가사회의 번영발달을 바랄 수 없음을 더 말할 나위 없다.

『학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여 왔다.

『여원』은 여성의 지적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 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미의가 있다.⁴⁾

2) 편집부, 『『여원』 1년의 발자욱』, 『여원』, 1956.10, 192쪽.

6·25 동란 후, 『생활문화』·『여성공론』(1946), 『부인』(1947년), 『부인경향』(1950) 『여성계』·『새가정』(1954), 『주부생활』(1956), 『가정생활』(1958) 등 각종 여성지가 속출했으나, 경영뿐 아니라 독자의 수준을 종잡기가 어려워 지속되지 못했다. (이영희, 『특집 여성해방20년-다듬어진 땅 더 기쁨지게』, 『여원』, 1965.8. 194~195쪽.)

3) 교양의 개념은 영국의 Cluture와 독일의 Bildung이 있다. 전자는 ‘완성된 지적 체계의 전수’라는 의미로, 후자는 ‘수양을 쌓아 습득하는 지식’의 의미가 있다. 근대 초기의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이 Bildung에 가깝다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은 Cluture에 가깝다.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12, 11쪽.)

4) 편집부, 『창간사-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여원』, 1955.10, 25쪽.

한편 『여원』은 과거와 같이 남성의 비호 아래 여성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들이 각성하고 일어서는데 편집방침을 두고, 독자인 여성들의 참여를 우선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적으로도 여성들의 관심 대상에 주목하는 방향성을 보이며, 필진들도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사상이나 이론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많이 실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여성 잡지와는 달리 문예취미적 차원에서 탈피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교양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⁶⁾ 이는 당시 사회와 여성계에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에 주목해 볼 때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원』의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하여, 당시 『여원』지에서 여성들의 문화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된 다양한 미디어 담론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담당한 직업여성의 형성과정과 그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화 이후 다양한 직업군이 계급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신중간계급 즉 중산층 여성의 젠더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원』은 세계 여성지도자의 소개, ‘상식콘사이즈’, 세계의 동향, 세계여성편력, 문학 및 여성에 대한 소개, 기본지식을 위한 독서관련 지침 등 여성교양을 위한 다양한 특집 및 기사를 게재하였다. (김복순, 앞의 책, 19쪽.)

5) 『여원』에서의 여성교양은 일반시민적 교양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각, 인간에 대한 이해, 과학적 합리적 지식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면서, 여성이라는 특수에 해당하는 각종 지식과 인격, 예절에 관한 것이 부가되었다. (위의 책, 17쪽.)

6) 1962년 11월 신태양사 주관으로 여성잡지 『여상』이 출간되었다. 당시 『여상』은 늦게나마 『여원』과 맞설 수 있는 기개와 내용을 가진 잡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조풍연, 『한국의 여성잡지가 걸은 길』, 『여원』, 1963.12, 80~81쪽.)

2. 직업여성의 형성과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의 젠더화 과정

2.1. 6·25 동란과 직업여성의 형성

한국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6·25 동란이라는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6·25 동란의 여파로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발생하면서 가장이 부재하는 현실에 직면한 여성들은 생활고를 극복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또한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은 진흥되지 못하고 경제적 상황은 불안정했으며, 올라가는 물가고로 생활비는 팽창되어 극소수의 특권계급을 제외하고는 일반 가정은 가장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소비면의 절약으로는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도 수입면의 증가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직장 진출은 국가적 차원으로 한층 심각하게 요청되었다.⁸⁾ 당시 여성의 직장 진출은 물론 직업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뚜렷하고 중요하였으며, 전후에 대단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⁹⁾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기능이 확대되고 전통적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즉,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 부부관계가 평등하게 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가정의 권위가 약화되고

7) 최일성·김현정, 『한국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195쪽.

전쟁 전 1949년에는 35.6%에 불과했던 직업여성들이 전쟁 후인 1951년에는 47.6%, 1952년에는 44.6%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생활을 힘겹게 했지만 가정 내 경제권 장악,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등을 통해 여성지위를 변화시켜 갔다.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213~214쪽.)

8) 김정호, 「더 개척할 수 있는 여성직장」, 『여원』, 1956.9, 46~47쪽 ; 김병욱, 「직장간 부로서 직장여성에게 드리는 요망」, 『여원』, 1956.9, 56쪽 ; 이예행, 「여성의 직장은 임시정류장인가」, 『여원』, 1956.9, 39쪽.

9) 「좌담회-직업여성들이 비판하는 남성사회」, 『여원』, 1955.12, 142쪽.

가정 부인의 지위가 강화되었다.¹⁰⁾

이러한 사회 경제상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여원』에서는 당시의 여성 의식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결혼하는 것을 상례로 여겼던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¹¹⁾ 가정부인들도 경제적 자립권을 획득하기 위해 직업전선에 진출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한편 『여원』에서는 이러한 여성 의식변화를 “개인의 인권 존중, 부인의 예측적 지위 향상, 여권신장, 남녀동권을 인정하는 근대구미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한 당시 한국의 실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유발시키는 한편 정서적 불안과 피로감을 사회 각 계층으로 확산시킨다고 보고 있다.¹²⁾

당시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당면과제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 더욱 부각되었지만, 여성이라는 한계가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지는 못했다.¹³⁾ 이에 대해 『여원』은 “직업여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여전히 동정이나 연민 등으로 경시하는 시각과 유식(遊食)을 고상하게 생각하는 봉건계급의식의 발로라고 진단하고 있다.¹⁴⁾ 또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에서의 직장은 소수의 여자학

10) 전쟁은 여성의 일상과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미망인의 생계형노동, 미혼여성의 저임금노동, 기혼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 2, 숙명여대출판국, 2005, 37쪽.)

11) 좌담회, 「직업여성들이 비판하는 남성사회」, 『여원』, 1955.12, 142쪽.

12) 편집부, 「송년특집-한국의 가정」, 『여원』, 1956.12. 54~59쪽; 편집부, 「특집-불안과 피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원』 1957.3, 54쪽.

13) 당시 한국여성의 지위와 대우는 아직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일순, 「세상에선 나를 「헤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여원』, 1958.3. 70~73쪽.)

14) 이예행, 「여성의 직장은 임시정류장인가」, 『여원』, 1956.9. 40쪽; 김경호, 「더 개척할 수 있는 여성직장」, 『여원』, 1956.9, 46~47쪽; 김용장, 「직장여성이 개척할 분야

교를 제외한다면 남자가 일하도록 마련되어 왔으며, 여성을 임시적 존재로 알고 비서, 서무 회계 등 임시적 보조적 기계적 부분으로 할당하는 남녀차별적인 경향성을 보여 왔던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뛰어난 여성의 직장진출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직장진출에 대한 귀족적 편견을 청산하고, 여성 직장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며, 여성의 직장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남녀평등이 법률상 뒷받침되어야 되어야 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여원』에서는 여성이 생리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직장 외 모든 직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각오의 목소리와 여성이 개척해야 할 다양한 직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독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¹⁶⁾

이와 같이 6·25 동란 후 1950년대 후반까지 사회경제상의 변화는 여성의 직장 진출은 물론 직업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뚜렷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여성의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다양한 계층의 직업여성을 양산시켰다.

당시 25~30세·40세 연령층의 여성이 가장 구직이 성했는데, 반드시 직장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중류 이하 빈한한 가정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원』에서는 1950년대 후반 직업 여성의 다양한 양상을 여성직업인의 수기와 좌담, 특집 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¹⁷⁾

는 아직도 많다-여성적인 감각을 여러 곳에 살려보자, 『여원』, 1958.4. 72~74쪽.
15) 1956년 내무부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사람 전체의 38% 중 여성 17% 즉 여성 총 인구의 1/3이 취업여성이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을 빼면 겨우 390,431에 불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제외한다면 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 직장진출은 6·25동란에서 발생한 미망인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으며 이후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직업집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장경학, 『특집-여성의 생활력과 행복의 장기계획 : 여성도 우선 생활력이 있어야 한다』, 『여원』, 1958.6, 62쪽.)

16) 김정호, 『더 개척할 수 있는 여성직장』, 『여원』, 1956.9, 46~47쪽.

17) 1955년 이후 1950년대 후반부까지의 직장여성에 대한 답론은 직장여성의 독자용

당시 여성 직업으로는 은행, 일반경리, 서무, 간호원, 점원, 의사, 약사, 학교교원, 차장, 가이드, 다방레지, 댄서, 이발사, 항공사, 자동차운전수, 토건회사 운영자 등이 있었다. 하층계급에 속하는 빈한한 가정의 여성들은 대부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공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으며, 중산계급에 속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비서출납원, 타자원 등의 기술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시 인기있는 직업은 은행원, 비서, 여간호원, 여교육자 등¹⁸⁾이었다. 주로 머리를 쓰지 않고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은 반면 섬세하고 치밀한 감각이 요청되는 직업분야, 미적 가치, 가정적 소질 등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결혼 전에 감정적인 교양을 쌓고 사회적 세련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경험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후반부에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직장 진출이 사회의 필연적인 과제로 사회 전반에 인식되면서 다양한 여성 직업이 형성되었다. 한편 당시 결혼상담소의 통계상, 남성들의 구혼 조건 중 생활능력이 있는 여성, 즉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었었으며¹⁹⁾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산되면서 여성들만을 위한 특수한 금융기관이 신설되었는데²⁰⁾ 이를 통해서 직업여성의 경제권 확립과 보장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수기인 “직장일기”를 통해 직장의 일상을 소개하는 차원의 글, 직업여성의 사회적 인식과 여성직장론에 해당하는 논설의 글, 하층계급 직업여성을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보도하는 진단성 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김정호, 앞의 글, 47쪽.

19) 결혼상담소의 통계에 의거하면 직장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1,20년 전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숙희, 『특집-여성의 생활력과 행복의 장기 계획 : 여성의 생활력 배양을 가로막는 것』, 『여원』, 1958.4. 65쪽.)

20) 『숙녀금고의 탄생(상은)』, 『여원』, 1959.8.

2.2. 근대화프로젝트와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의 대두

6·25 동란 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해방 후 한미동맹이 성립된 후 미국의 경제원조가 한국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준 데도 원인이 있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6·25 동란 후 부족한 물자와 식량난을 보충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식료품, 농업용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가 주축이 되었다. 특히 미국 농업공황 해결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농촌경제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농촌의 면화농사와 밀농사가 타격을 입으면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부계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의 빈민화와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외연적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상업이윤의 획득에 기초한 ‘관료자본’의 성격을 띤 사적 자본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1957년 이후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동아시아정책에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외원조정책도 소비재 중심의 원조에서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조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경제원조도 차관으로 대체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서 ‘생산재 생산공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1959년 경제개발계획(1960~62)이 입안되기 시작하였다.²¹⁾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격심한 경기불황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²²⁾ 결국 두터워진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21)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315~329쪽 ; 김인걸 외 편저, 앞의 책, 179~193쪽 ; 구로역사연구소, 『바로보는 우리역사』2, 거름, 1990, 157~162쪽.

22) 김일영, 앞의 책, 263~265쪽 ; 김인걸 외 편저, 앞의 책, 272~279쪽.
원조물자의 처리와 배분과정에서 극심한 물자난과 인플레이션, 귀속재산불하, 금융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재벌이 형성된다. (김대환, 『한국경제의 성격과 구조』,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45~1960』, 열음사, 1987, 135~142쪽.)

확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4·19 시민혁명을 발발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4·19 혁명 이후 자유, 민주, 경제안정과 번영 등의 의미는 상실되고 민주주의의 변질된 판단기준으로 사회는 혼돈의 와중에 놓이고 경제적으로도 빈곤을 타개하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면서, 1960년대 초반의 실업현상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정도로 심각해졌다.²³⁾ 이와 같이 많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와 소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수립된 제3공화국은 시급한 영세국민이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공과 근대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기에 이른다.²⁴⁾ 『여원』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 문제가 신문, 잡지층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제3공화국이 탄생한 이래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논의의 대상이

23) 송건호, 「꼭 취직을 하여야 하는가」, 『여원』, 1963.4. 108~111쪽 ; 편집부, 「취직을 미끼로 한 사기」, 『여원』, 1963.4. 116~119쪽.

당시 전국 실업자 수는 380,567명으로서 그 중 남자가 315,048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82.7%를 차지하고 여자 실업자는 불과 18.3%인 65,483명으로 되어 있다.(1962. 2. 20 당시) 이 통계에 의하면 첫째 총실업자의 57%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경북,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로 연령계급별로 볼 때 우리나라 실업정태의 특성으로서 20세부터 39세까지의 실업자가 총 실업자 수의 57.1%로서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셋째, 학력별로 분석하여 보면 중학교 이상 대학까지의 각급학교 졸업자로서 실업하고 있는 자가 109,421명으로서 2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실업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김행자, 「금년도 대학졸업생의 항의-대졸후 무엇을 하겠느냐」, 『여원』, 1965.3. 117~119쪽.)

24) 구로역사연구소, 『바로보는 우리역사』, 171~177쪽 ;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 근현대사』, 344~348쪽 ; 역사학연구소, 『바로보는 우리역사』, 344~355/413~419쪽.

반공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대화는 대중의 내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한다. (김한중, 「한국현대사의 변화와 사회의 성격」, 『사회과학연구』 9, 2006. 2, 69~70쪽.)

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 문제가 이 즈음에 이렇게 화제에 오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역사는 이미 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근대화가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은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합리화의 원칙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한가지로 적용된다. 생활의 근대화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만 한다.²⁵⁾

제3공화국 수립 후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부각되었던 근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방면에 공통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아각성과, 합리적 생활양식에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정책에 있어서 합리화의 원칙은 개인 생활의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²⁶⁾ 이는 결국 1963년 이후 수립된 경제개발정책과 연계된다. 이는 『여원』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새해 연두교시를 발표하며 박정희대통령은 올해는 수출, 증산, 건설의 세가지 큰 목표를 세우고 「일하는 해」로 모든 국민이 다같이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자립의 평원을 향해 줄달음치자고 강조했다.

「일하는 해」의 설정은 그것대로 새로운 듯하게 들린다. 온 국민이 근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지는 것은 비록 화려한 「판파레」를 울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슴에 간직해야 할 생활의 신조어야 할 것이다.²⁷⁾

25) 조기준, 「특집 : 한국여성의 근대화-무엇이 근대화인가」, 『여원』, 1964.2, 62~65쪽.

26) 박선영, 「실업의 실태와 고용의 현실」, 『여원』, 1963.4, 98~102쪽.

27) 장상길, 「금년도 대학졸업생의 향의-배워도 못 써먹는 사회」, 『여원』, 1965.2, 112쪽.

이를 통해서 1963년 이후의 경제개발정책은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국가 주도의 대외지향적 수출지향정책²⁸⁾과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신자세인 “제2경제”를 강조하는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여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정신자세를 확립하는 정보 교육적 차원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적인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부업을 소개하는 글³⁰⁾과 당시 수출정책에 부응하는 보세가공에 대한 글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³¹⁾ 또한 해외노동력의 수출³²⁾을 강조하는 한편 독일의 근로여성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³³⁾

한편 1952년 이후 실시된 의무교육으로 1950년대 말 현격하게 문맹

28)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356~363쪽.

29) “제2경제”를 위한 정책은 저축, 근검절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곡의 지급화 정책과 혼식·분식의 장려, 대용식량으로 라면보급을 확대하였으며,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였다. (김한중, 앞의 글, 69~70쪽.)

30) 이영희, 『특집- 여성해방20년 : 다듬어진 땅 더 기름지게』, 『여원』, 1965.8, 196쪽. 당시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은 전체 여성에 비해 0.5%에 불과하였으며 여성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모임이나 그룹 활동 또는 강습에 나가지 않는 기혼여성들은 89.8%를 헤아리고 있었다. 이는 1950년대 후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기혼여성들을 기피하고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고용하던 것이 196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기혼여성들에게는 부업을 통해 가정 내 경제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김충애, 『우리집의 살림공개-부업으로 이룩할 보금자리』, 『여원』, 1966.6, 300~304쪽 ; 손금옥, 『르뽀 : 부업이 되는 보세가공』, 『여원』, 1966.9, 206~211쪽.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지향 산업화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수출은 생산 원료와 중간재, 시설재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조립가공한 다음 다시 수출하는 단순가공무역이 대부분이었다.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363~368쪽.)

32) 당시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선원수출, 원양 어업 개척 등 해외노동력수출의 사례가 많았다. (김일영, 앞의 책, 355~372쪽.)

33) 『특집 대통령 방한 서독방문 7일간 : 육영수여사와의 인터뷰-더 일하고 잘 삽시다』, 『여원』, 1965.2, 100~101쪽 ; 나은실, 『특집 대통령 방한 서독방문 7일간-라인강의 기적은 없었다』, 『여원』, 1965.2, 102~105쪽.

률이 저하되면서 고등교육 이수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196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토대가 되는 양질의 노동력과 산업화의 주도 세력인 엘리트 관료들을 충원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³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아진 여성들의 대다수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직업여성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다.³⁵⁾

한편 『여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여성의 근대화를 앞당긴다고 보고 여성의 직장 진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여성의 사회진출 즉, 교육조직을 통한 여성의 자각, 직장생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역사회 단위로 움트고 있는 여성조직을 통한 자각, 각종 「씨클」활동-이를테면 동창회라든가 계모임이라든가, 자모회 또는 무슨 후원회 등을 통해 발휘되는 여성의 영향력 등 다양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경향은 주로 직장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으로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남성 위주 사회의 전통적 봉건성이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국내공업계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고용이 창출되면서

34) 김일영, 앞의 책, 249쪽.

35)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직장에 진출한 여성의 수는 1965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총 취업인구 910만 명 중 320여만 명으로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여성이라면 생활이 몹시 곤란하든가 평탄하지 못한 사연을 지닌 여성으로 인식되었던 해방 전후와 비교하면 수적으로 여성의 직장진출이 팽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무현, 「직장의 꽃 생활의 멋 ④ - 소중한 낮 한때」, 『여원』, 1966.4, 113쪽.)

36) 최석채(조선일보논설위원), 「특집-한국여성의 근대화 : 여성의 사회참여」, 『여원』, 1964.2, 74~77쪽.

1960년대 초반에 극심하던 실업현상도 점차도 감소되었다.³⁷⁾ 당시의 산업화와 근대화정책은 산업화를 위해 광범위한 지식인을 체제 내로 동원하는 방침을 중심에 두었는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중산층 확대방식으로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행정 기업조직의 관리자 즉 공무원, 사무원, 기술자, 변호사, 의사, 기자 등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신중산층³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³⁹⁾ 1960년대 직업여성을 살펴보면, 교육가, 예술가 등은 종래에도 있었지만 정치가, 조종사, 기사, 법관, 외교관, 학자, 직업선수 등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었다.⁴⁰⁾ 특히 『여원』에서는 1960년대 이후 “직장인 꽃 순방”이란 난을 통해 모범적인 직업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 여성직업은 대부분 사무원, 여비서, 은행원, 기자, 외교관, 교사, 간호원, 약사, 방송인 등이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직업여성이 여성교육의 증가와 함께 1950년대에 비해 ‘신중간층’이라 불리는 여성들의 직장진출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원』에서는 다양한 여성직업군에서도 특히 중상류계급 이상의 지식여성들 즉, 문화교양 계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직업을 담론의 초점

37) 이러한 경제발전은 미국의 차관에 의존한 것으로 결국 1960년대 말 외채상환부담이 경제전반을 위협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 (이현희, 『한국근현대사의 재조명』, 삼광출판사, 2000, 248~252쪽.)

38) 신중산층은 근대적 교육, 과학기술, 합리적 정신을 갖춘 사람들로 실질적 한국 근대화를 담당하는 주체세력이었다. (김영모, 『중산층의 지위와 기능』, 『정경연구』, 1966.4, 171쪽.)

39) 이는 로스토헤우 류의 “제3세계근대화론”은 군인과 지식인의 결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지식인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홍석률, 『1960년대 지식계의 동향』,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 1963~1970』, 백산서당, 1999, 191~193/203~206쪽.)

40) 강인숙, [특집-여성해방의 20년 : 두다리로 대지에 서다], 『여원』, 1965.8. 188~191쪽.

에 두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근대화정책에 부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원』에서 지식여성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에 주목한 것도 신중산층의 형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여대생의 졸업 후 진로모색으로서의 취업과 결혼 후 영구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여교사, 의사, 약제사, 피아노, 양재 등 특수한 기술력을 지닌 직업을 제안하고 있다.⁴¹⁾ 이를 통해서 당시 지식여성의 직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여성의 영구적인 사회 진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의 변모상과 『여원』을 통해 나타난 여성직업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는 양공주, 식모, 여직공 등 하층계급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르뽀, 특집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담론화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양계급의 시각으로 하층계급 여성 직업을 타자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²⁾ 또한 『여원』에서는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는 반면 섬세하고 치밀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서비스직을 여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다.⁴³⁾ 이는 여성의 특성에 주목한 직업의 제안이지만 특정 직업에 여성이 밀집되어 저임금 현상을 초래하여 여성의 동등한 지위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⁴⁴⁾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1950년대 후반, 『여원』에서는 착실한 여성 직업으로 미용사, 타이프리스트, 이발사, 재단사, 양재사와 간호원과 조산원 등의 전문기술이

41) 이부현, 「직장의 꽃 생활의 멋 ④-소중한 낮 한때」, 『여원』, 1966.4, 113쪽.

42) 황일호, 「딸라의 매력인가-양공주들의 실태」, 『여원』, 1956.1, 230~233쪽 ; 방철원, 「한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식모의 실태」, 『여원』, 1956.1, 234~238쪽 ; 김지향, 「르뽀 르파아쥬 특집- 한국의 청춘: 기계와 제복에 싸인 여공들」, 『여원』, 1964.6, 142~146쪽 ; 「르뽀 특집-그들은 아직도 그늘에 있었다」, 『여원』, 1966.3, 146~181쪽.

43) 김용장, 「직장여성이 개척할 분야는 아직도 많다」, 『여원』, 1958.4, 72~74쪽.

44) 나탈리 J. 소콜도프, 『이중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대출판부, 1990, 93~95쪽.

필요한 직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당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직업으로는 교사, 비서, 은행원, 여간호원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러한 신흥 중간계급의 직업여성은 1950년대에는 매우 희소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근대화의 주요 인력으로 인식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원』에서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상층계급의 직업여성을 근대화 담론의 초점에 두고 있다. 이는 『여원』이 “지식 여성의 문화적 교양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의 번영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창간 당시의 기획 의도와 『여원』의 주 독자층이었던 직업여성⁴⁶⁾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 『여원』에 나타난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화 양상

3.1.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의 교양교육 담론

『여원』에서는 195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진출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업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기획 제공하고 있다.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계급의 직업여성군을 담론화하고 있으나, 주 대상층은 문화교양계층에 속하는 신흥 중간계급 이상을 초점화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신흥 중간계급은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근대화와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 중산층을 확대하고자 한데서 중간계급 형성이 비롯된 것이다.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기업조직의 관리직, 사무 노

45) 『공동연구-여성의 취직과 직장의 남녀관계』, 『여원』, 1959.3, 166~172쪽 ; 박경숙, 『처녀이발사로 8년』, 『여원』, 1958.9, 224~226쪽.

46) 『좌담회-직업여성들이 비판하는 남성사회』, 『여원』, 1955.12, 142쪽.

동자와 기술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신혼 중간계급이 형성되었다.⁴⁷⁾

문화교양계층인 지식여성의 지원 아래 기획되었던 『여원』은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던 신혼 중간계급 특히 화이트칼라 직에 종사하는 여사무원, 비서직 등을 초점화하여 학교의 장(場)과는 다른 문화자본⁴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여원』에 나타난 예비 직업여성과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담론과 직업인의 소양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담론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원』에 나타난 예비 직장인을 위한 담론은 직장인 탐방, 일반 직장인 체험수기 및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수기, 직업여성의 좌담, 특집 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직장인 탐방은 직업여성의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 직업인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이력과 덕목을 소개하고 있으며, 직장인 수기는 직장생활의 애환을 일기형식으로 소개하여 직업의 특징과 업무를 간접적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담론화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직장진출을 앞둔 여성들에게 구직의 가능성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각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예비 직장인을 위해 신입사원의 채용기준과 전형조건⁴⁹⁾ 시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론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과시험, 면접고사, 회사

47) 홍석률, 앞의 책, 226~237쪽.

48)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자본을 경제적인 차원에 국한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본을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갈등과는 다른 갈등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뵘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김종철 역, 새물결, 2005, 13~14쪽.)

49) 홍승면, 「신입사원전형조건-신문기자예의 길」, 『여원』, 1963.4, 120~123쪽; 이병승, 「신입사원전형조건-은행원이 되려면」, 『여원』, 1963.4, 124~127쪽; 배춘호, 「신입사원전형조건-방송인이 되는 최저조건」, 『여원』, 1963.4, 132~135쪽.

가 요구하는 인물, 답안 작성의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채용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채용시험보다는 연고관계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병폐를 용납될 수 없는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는데,⁵⁰⁾ 이는 합리적인 사고와 근대적 교육을 중시하는 신흥중간계급의 자질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원』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 일상적 업무지침과 예절교육, 생활예절 등의 교육적 차원의 담론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적 회사생활에서의 행동에티켓은 아침인사, 아침정리, 자세, 몸가짐, 집무시간 잠담금지, 손님접대, 전화, 윗사람과의 대화, 노크, 윗사람의 지시를 받았을 때, 복도 및 계단에서 동료나 윗사람을 만났을 경우 등의 행동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¹⁾ 이러한 행동에티켓은 직장여성들의 전문적 소양 교육이기 보다는 예절적 차원의 행동에티켓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양 교육적 차원의 지침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일반적 주의사항, 몸가짐, 사무처리, 인사법, 동료 간에 주의할 사항, 전화 대응법, 서류처리, 서신의 취급, 내객응대법, 급사사무, 장부 및 전표기재법 등 구체적인 직무교육적인 차원의 정보로 전전되고 있다.⁵²⁾

『여원』에서는 이러한 직업교육적 차원의 담론 외에도 직업인의 소양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담론이 권면의 글과 “바라는 직장여성상”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권면의 글은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여성들”에게 조언을 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회사업무와 일처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직업여성인으로서의 정신적 소양 특히 사람으로서의 덕목과 여성다운 처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

50) 이영춘(유유산업사무이사), 『일보전진한 창의력과 건강』, 『여원』, 1963.4, 128~131쪽.

51) 『직장여성에티켓』, 『여원』, 1955.11, 77~80쪽 ; 『직장여성에티켓』, 『여원』, 1957.4, 94~98쪽.

52) 편집부, 『B·G 一年生の 수첩』, 『여원』, 1961.3, 182~189쪽.

다.⁵³⁾ 또한 “보이프랜드와 극장 출입을 하고, 댄스홀에 출입하면서 일간신문을 읽지 못하는 직장여성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론화하고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직장진출로 인해 대두되고 있었던 사회문제를 염두에 둔 담론으로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직업여성에 대해 봉건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장과 복식에 대한 담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직업여성일지라도 “여성은 직장 안에서 한 개의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여성은 “의상 스타일은 종래의 인습에서 오는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지만 유난스러운 화장은 피할 것”⁵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과 복식 등의 취향은 신흥중간계급의 취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식과 교양으로 다져진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세련미”⁵⁵⁾를 가장 중요한 문화자본⁵⁶⁾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초창기 직업여성들이 인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⁵⁷⁾ 이는 여성 스스로가 참다운 근로의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場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미약한데서 비롯되었다. 『여원』에서는 이러한 직업여성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적 차원의 담론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여성 직업인의 소양과 의식함양을 위해 “직업여성이 공통으로 깨달아야 할 것”으로 직업여성은 도시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되어

53) 차사백(무학여고교장),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여성에게-K양에게 주는 글」, 『여원』, 1956.9, 49~53쪽.

54) 오엽주(동화백화점미용실), 「직업여성의 화장과 의상」, 『여원』, 1956.9, 48~49쪽 ; 「직업여성의 생활요령」, 『여원』, 1958.12, 253쪽.

55) 박연숙, 「직장의 꽃 생활의 멋 ⑨-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여원』, 1966.9, 180~182쪽.

56) 문화자본은 지식, 교양, 취미, 감성 등 육화된 상태, 문화적 상품 등 객체화된 상태, 학교 졸업장 같은 제도화된 상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삐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13~14쪽.)

57) 『여원』, 1959.9, 40~41쪽.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직업여성들에게 근로의식과 자아실현의 장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場으로서의 직업의식을 형성시키는 또다른 방식으로 독서를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여성들의 독서열이 왕성해져야 하는 이유를 “직업여성의 교양이나 지적 수준이 여성 전체의 교양과 지식을 측량하는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원』이 직업여성들 가운데 특히 신혼중간계급에 속하는 지식여성을 담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각 직장 업무상 필요한 전문적인 혹은 특수한 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과 직장생활 중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양과 지식 습득을 위한 방편으로 독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문화교양적 차원의 독서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업여성이 직장생활을 통해 남녀동등권의 실천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와 연관되어 있다.⁵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여성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담론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신혼중간계급의 문화자본을 전수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직장연애와 결혼의 문화담론

6·25 동란 이전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바로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6·25 동란 이후에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이 사적영역인 가정 내에서만 그 역할이 제한되었던 것에서, 직장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

58) 편집부, 『직업여성의 생활요령(몸가짐, 복장, 미용)』, 『여원』, 1958.12, 247~250쪽.

59) 조연현, 『직장여성의 독서씨클조직을 제창한다.』, 『여원』, 1957.10, 63~64쪽.

제적 자립권의 획득과 자유연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여성의 직장진출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당면과제였으나, 한국 사회의 봉건 의식은 여성의 직장연애를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전후의 사회 전반의 과제였던 여성의 직장진출을 수궁하면서도 “연애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각서를 쓰고 직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직장 내 연애는 금기사항이었다.⁶⁰⁾ 이와 같이 자유연애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일각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은 6·25 동란 이후 구미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풍기문란한 사회풍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의 담론은 여성을 타자화하여 봉건적인 의식에 예속화하고 가부장제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여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직장연애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과 연애”의 문제가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당시 한 직장 안에서의 연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칙으로 금지된 사항이었다. 이렇게 직장연애를 사회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은 연애와 결혼을 별도의 것으로 인식하여 향락적인 연애가 성행하는 사회적인 풍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기혼남자의 취미연애의 대상으로 희생되는 직업여성이 종종 발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남녀가 같은 직장 안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자유롭게 조성되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 연애 대상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한 직장 안에서도 생활과 연애가 조화된 가운데 병행된다면 연애는 숭고한 것이며 직장에서의 근무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⁶¹⁾ 계기가 된다”는 의식이 형성되기 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게

60) 『좌담회-직업여성들이 비판하는 남성사회』, 『여원』, 1955.12, 145~146쪽.

61) 주요한, 『연애와 직장-두가지의 경우』, 『여원』, 1956.4, 53~57쪽.

되면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연애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여원』에서는 결국 직장연애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자, 직업여성을 위한 연애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풍기문란한 사회 풍조를 우려하여 반드시 도덕적 범주 내에서 연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봉건적 사회의식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사무적인 관계 내에서만 교제를 나누는 것을 권장하지만 연애를 할 시에는 직업여성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⁶²⁾ 이는 특히 연애감정이 직무에 지장을 주게 되면 자기직무에 책임을 등한히 하는데서 오는 손해도 크지만 동료와 상사에게 신임을 잃게 되고 직장 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연애를 하면서 전보다 더 열심히 자기책임을 완수해 나간다면 상사와 동료들은 그들을 동정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직장연애에 대한 담론은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직장연애를 하더라도 공사를 구별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할 것과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연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 당시 직장연애를 통해 결혼으로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배우자 선택은 부모님께 일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연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요청에 의해서 여성

62) 황신덕(중앙여고교장), 「직장에서의 남녀교제」, 『여원』, 1956.9, 43~45쪽; 차사백,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여성에게」, 『여원』, 1956.9, 52쪽.

63) 전숙희(수필가), 「직장연애」, 『여원』, 1958.8, 194~197쪽; 「공동연구 여성의 취직과 직장의 남녀관계」, 『여원』, 1959.3, 179~181쪽.

들의 직장 진출은 허용되었지만 직장연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화정책에 의해 합리적인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사회 일각에 서는 봉건의식이 생활상에 여전히 잔존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3. 기혼직업여성의 사회담론 : 가정우선주의와 이중노동 썸

6·25 동란 이후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의 직장진출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역할이 우선적이라는 “가정우선주의”적 입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미혼여성의 직장진출보다는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에 더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정살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편으로 직장진출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사적 영역, 즉 가정에서 살림을 돕는 게 여전히 가장 주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⁶⁴⁾

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인 현모양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이 직장을 갖는 경우에는 생활난은 해결되지만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 즉, 정조를 상실한 다든지 부도에 어긋난 발전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에는 이러한 풍조에 대한 우려로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을 장래의 배우자로 희망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더 많았다.⁶⁵⁾ 그러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사

64) 신혼부부가 완전독립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긍정적인 부분을 초점화하고 있다. (『특집-서울의 지붕밑:행복을 찾아 싸우는 생활보』, 『여원』, 1956.10, 92~109쪽.)

65) 유승규, 『주부가 직장을 갖는 경우 가정에 미치는 영향』, 『여원』, 1956.9, 53~56쪽.

회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특히 가정부인들의 직장 진출과 가정 내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맞벌이 담론이 대두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생활양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사회적 가정적 지장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가정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집안경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근대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성이 자진해서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직장생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남자라는 궁지에서, 질투에서 아내의 직장생활을 적극 반대하여 생활이 엉망이 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⁶⁶⁾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상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만 긁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나서서 둘의 행복을 건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남성화자와 여성화자는 각기 다른 입장의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충충히 귀가하여도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텅빈 방에서 마음의 공허를 느낀 남편은 다시금 바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된장찌개만 놓고 같이 먹더라도 나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고 제탄에도...저축을 할 수 있고 생활도 안정되리라고 생각⁶⁷⁾

둘어서 서로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따로따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같이 번다는 이야기가 요사이에 와서는 서로의 개성대로 자기 취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남편과 주부와 자식이라는 관계보다도 하나의 남성과 여인과 또하나의 꼬마남성 이 세사람이 한 울타리 속에 사는

66) 정충량(평론가), 「부부가 같이 벌도록 하자」, 『여원』, 1958.11, 228~232쪽.

67) 박규수(회사원), 「아내의 직장생활을 반대한다」, 『여원』, 1958.11, 233쪽.

셈이다. 이러한 가정이기에 찬바람이 불 것 같으나 도리어 남들은 재미있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한다. 도시 모를 일이다.⁶⁸⁾

남성화자인 남편은 가정생활의 윤택함보다는 단란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맞벌이 여성화자의 입장은 다르다.

종래의 사고방식-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을 규모있게 요리할 줄 아는 알뜰한 주부가 되는 것이 고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람있는 새출발을 위해 아내도 직장을 가져 남편의 노고를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⁶⁹⁾

이와 같이 기혼여성들이 대부분 직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남편의 노고를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 즉, 가정살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의 직업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을 하기 전 잠깐 동안에만 직장에 머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⁷⁰⁾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들의 직장진출이 많아지면서 미혼과 기혼의 의미보다는 능률의 관점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⁷¹⁾ 한편 1960년대가 되면서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에 대한 의식도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여성이 직장에 진출하는 율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지만, 이웃나라의 경우로 보면 직장여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율은 가속도적으로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BG(Business Girl)라는 말 대신에 BW(Business Woman)

68) 최백산(영화평론가), 수입은 두배라도 재미는 절반, 『여원』, 1958.11, 238~239쪽.

69) 김재광, 「2배의 즐거움과 2배의 노력」, 『여원』, 1958.11, 236~237쪽.

70) 『특집-출가하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가』, 『여원』, 1959.1, 94~118쪽.

71) 조기호, 「미쓰와 미세쓰의 능률」, 『여원』, 1959, 111~113쪽.

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차츰 생활구조가 현대화되고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현대화되면서 기혼여성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성 싶다. 이제는 기혼녀들의 취업이 옳으나, 그르나로 시비하는 사람들도 사라졌다.⁷²⁾

BG(Business Girl)라는 말 대신에 BW(Business Woman)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기혼여성의 직장진출도 중요한 가정생활의 윤택유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원』에서는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기혼여성들을 위해 결혼한 이후에는 직장에 나가기 보다는 가정 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담론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⁷³⁾ 결국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우선 시하면서도 가정 경제의 책임도 담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4. 직업여성의 사회복지 담론

여성의 직장진출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면서 여성이라는 생리적인 한계에 의거한 여성의 복지문제도 직장여성 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월경과 임신, 출산에 대한 배려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익히 보호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보호조건은 오히려 여성(아이 딸린 어머니,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에 역효과로 작용하였다.⁷⁴⁾ 그러나 남편 혼자 힘으로는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결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의 취

72) 박연숙, 「직장의 꽃 생활의 멋 ⑨-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여원』, 1966.9, 182쪽.

73) 「특집-주부의 힘으로 가능한 내직안내」, 『여원』, 1959.1, 177~195쪽; 김충애, 「우리집의 살림공개 ⑭-부업으로 이룩할 보금자리」, 『여원』, 1966.6, 300~304쪽; 손금옥 기자, 「르뵘-부업이 되는 보세가공」, 『여원』, 1966.9, 206~211쪽.

74) 이예행, 「여성의 직장은 임신정류장인가」, 『여원』, 1956.9, 40~41쪽.

업문제와 복지문제가 담론화 되었다. 우선 갓난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탁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담론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탁아실 부재 등 미비한 사회시설은 여성들의 생활력 배양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망인 타락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공하였다.⁷⁵⁾ 당시 한국의 경우에는 전매청이나 국책회사 등은 탁아실이 있으나 초보적인 것이지 본래적인 것은 못되고 있었다. 따라서 탁아실이 있어서 아이떨린 어머니들이 별 고통없이 순조롭게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한국도 탁아실 운영을 사업체의 책임자와 당국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⁷⁶⁾ 이밖에도 위생시설과 여성을 위한 휴게실, 오락실 등 직장여성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에 대한 시설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⁷⁷⁾

이외에도 직장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제는 근로기준법(직업소개법, 실업보험법)⁷⁸⁾에 반영되어 있으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기업주의 무성의와 무지함, 행정당국의 무책임, 직장여성들 자체의 각성이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5) 전숙희, 「특집-여성의 생활력과 행복의 장기계획 : 여성의 생활력 배양을 가로막는 것」, 『여원』, 1958.4, 67~68쪽.

76) 「모노로그 : 여성직장과 탁아소」, 『여원』, 1958.4, 197쪽.

77) 이무현, 「직장의 꽃 생활의 멋④-소중한 낮 한때」, 『여원』, 1966.4, 116쪽.

78)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우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살피서 여하한 차별적 대우도 할 수 없게 하고 또 봉건적인 관념으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게 될 가능성을 없애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성을 위한 특별보호법으로는 제56조 야업금지, 제59조 생리휴가, 제60조 산전후휴가, 제62조 귀향여비 등의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엄기형(서울일일신문사논설위원), 「직장 여성의 보장문제」, 『여원』, 1961.4, 113쪽.)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원』에서는 여성이 직장에 진출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 여성독자의 수기를 통해 실제적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논설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직업여성의 문제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기 보다는 공적인 영역과 사회제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 문화교양계층의 아비투스 형성

『여원』은 창간 당시 “여성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여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제공 하는데 그 미의”를 찾고자 하였다.⁷⁹⁾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성의 학력 자본이 지극히 낮았던 만큼 여성의 독자층이란 지식여성 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원』은 지식 여성과 그에 준하는 여성들 즉, 여대생, 직업여성 등을 주 독자층⁸⁰⁾으로 한 기획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들 여성들에게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사회로 시각을 넓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책임의식을 요청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부응하기 위해 중상층 계급에 해당하는 문화교양계층의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문화자본을 유지 전수하는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여원』의 기획 방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문화교양계층의 교육정도, 취향, 매너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유사한 문화적 자

79) 『여원』, 1955.10, 25쪽.

80) 『여원』, 1955.12, 142~147쪽 ; 『여원』, 1956.1, 72쪽 ; 『여원』, 1956.10, 192쪽.

본⁸¹⁾을 미디어 담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문화교양계급과 문화적 성향들 사이에 내재된 연결고리인 아비투스⁸²⁾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원』에서 기획 제공했던 직업여성 관련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하층 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여성의 담론을 다룰 때는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상층 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여성들의 담론을 다룰 때는 직업여성 자신들의 수기와 실제적인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양계급인 중상층 여성의 사회적 책무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1) 부르디외의 문화갈등론(1977)에 의하면 미디어자본의 유형은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징적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 자본은 교육정도, 취향, 라이프스타일, 습관, 매너, 언어스타일, 인간적 매력, 용모, 카리스마, 호평, 소문, 체면, 위신 등을 의미한다. (조종혁, 『미디어아비투스과 상징적 폭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07. 봄, 34~38/47~50쪽.)

82) 아비투스는 동일한 계급의 구성원들의 공іль한 인지, 태도, 행위의 속성, 의식, 지각과 판단, 취향, 사물의 구별짓기 등에서 상호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사성은 계급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그것들의 자연화라는 다분히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아비투스는 계급과 문화적 성향들 사이에 내재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육체에 각인된 기질 혹은 체화된 성향 혹은 체질 같은 것을 의미한다. (조종혁, 앞의 글, 38~41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원』, 1955. 10~1970. 4.

2. 단행본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역사』2, 거름. 1990.

김대환 외,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45~1960』, 열음사. 1987.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 : 1945~1990』, 돌베개. 1998.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이현희, 『한국근현대사의 재조명』, 삼광출판사. 2000.

정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2, 숙명여대출판국. 2005.

최일성·김현정, 『한국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홍석률 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 1963~1970』, 백산서당. 1999.

나탈리 J. 소콜도프, 『이중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대출판부. 1990.

베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새물결. 2005.

3. 논문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2007. 12, 11·7~60쪽.

김한중, 「한국현대사의 변화와 사회의 성격」, 『사회과학연구』 9. 2006, 61~78쪽.

조종혁, 「미디어아비투스과 상징적 폭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07. 봄, 31~61쪽.

Abstract

A Study on Discourse of Career Women in *YEOWON*

Lee, Sang-hwa

YEOWON is the women's cultural magazine that had been issued up until April of 1970 since October of 1955. It promoted women's culture and education under the support of intellectual women, and offered diverse media discour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nation and society. And, out of it, the discourse of career women, who stand for the bracket of culture and education, is continuing to be planned.

What the career women emerged substantially originated from social reality dubbed the absence of the family head after the Korean War on June 25th, 1950, and from what America's economic aid, which had started since the liberation, arranged the foundation of Korean economy. As the foreign-oriented & export-oriented policy led by the nation even though being based on foreign capital in the 1960s was reinforced, women's diverse job categories were formed. In particular, the modernization policy, centering on the middle class based on 'the 3rd-generation modernization theory,' allowed the advance to a work place in intellectual women to be spread. And, this com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new middle class.

YEOWON reflects a social aspect of these career women while allowing new middle class to be focused and discussed, which had been emerged newly. In other words, it is functioning as the cultural capital different from a field of school, such as the discourse in

educational dimension such as offering information for preliminary career women and new employees, offering information for promoting elementary knowledge and consciousness in career women, and as the discourse in social phenomena and institutional dimension such as problem about love and marriage in the unmarried career women, problem about family and child-care in the married career women, and problem about social welfare in career women.

In *YEOWON*, when addressing the discourse of career women corresponding to the lower class, the social responsibility is being emphasized while addressing as part of a social issue. And, when addressing the discourse in career women corresponding to the upper middle class, it is offering the note in career women themselves and the information applicable to real life. This is what corresponds to the planning intention that aimed to form habitus with focusing on the cultural capital such as educational level, taste, and manner in new middle class, namely, cultural education bracket, which is the main group in the modernization policy.

Key words : Career woman, New middle class, Modernization policy, Media discourse, Habitus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